

언론의 책임



▲ 2014-1203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영만

〈주문〉

헤럴드경제 2014년 5월 21일자 1면 「뉴욕커들의 필수 건강식/클렌즈 주스 업그레이드」, 6월 11일자 1면 「기다렸던 프리미엄 쌀…」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헤럴드경제는 식품기업인 '올가니카'의 제품을 소개하는 홍보 기사를 20일 간격으로 두 차례 1면 사이드 톱기사로 게재했다. 올가니카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가니카는 '헤럴드경제의 식품사업부'이고, 회사 대표는 헤럴드경제 대표다.

'5월 21일자' 기사는 '프리미엄 3-데이 토털 클렌즈'라는 제품명의 클렌즈 주스를 칭찬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제품의 컬러사진과 함께 마치 광고문구처럼 큰 제목을 「뉴욕커들의 필수 건강식/클렌즈 주스 업그레이드」로 달았다.

'6월 11일자' 기사 역시 컬러사진과 함께 올가니카의 무농약 쌀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는 큰 제목을 「기다렸던 프리미엄 쌀…」이라고 뽑

았다. 이처럼 두 기사는 자사에 경제적 이득이 되는 편향된 정보를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언론사가 주요 지면에 자사 제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이 같은 지면 제작 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며,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104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문〉

서울신문(seoul.co.kr) 2014년 12월 12일자 「“난 천사야” 성당에서 야동 촬영한 여성 논란」 제목의 기사와 사진, 동영상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기사와 사진, 동영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난 천사야” 성당에서 야동 촬영한 여성 논란』



성당에서 야한 동영상(이하 야동)을 촬영한 여성의 충격적인 모습이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영국 매체 ‘미러’는 최근 오스트리아 호싱의 한 성당에서 야동을 촬영한 20대 여성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영상을 보면 폴란드 출신의 뱍시(Babsi)로 알려진 29세의 젊은 여성이 성당 안으로 들어온다. 자리에 앉은 그녀가 십자가가 달린 목주를 목에 걸고 성경책을 펼쳐 든 뒤 주위를 살핀다. 잠시 후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드러내고 만지면서 야릇한 포즈를 취한다. 영상에는 신원을 알 수 없게끔 그녀의 얼굴이 나오진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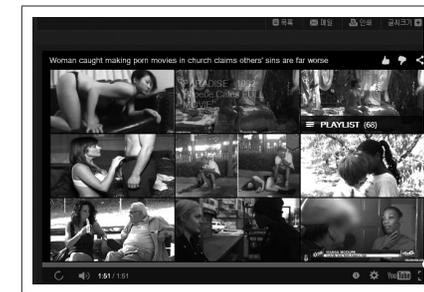
이 영상은 한 교구민이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해 지역 사제 베른하드 포우 신부에게 알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한 포우 신부는 이를 경찰에 알렸으며 경찰 조사 끝에 여성의 신원을 밝혀냈다.

성당에서 야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짓에 비하면 난 천사”라며 “나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징역 3개월의 선고와 함께 뱍시가 피해 성당의 신부에게 사과하고 그녀가 야동으로 번 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730만원을 벌금으로 부과했다.

사진·영상 = CEN / HDNEWS24 youtube영상팀 seoultv@seoul.co.kr 2014-12-12
(<http://stv.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212500256>)

※ 해당 동영상 종료후 화면





〈이상 캡처시각 12. 17. 18:05〉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12월 12일 자사 홈페이지의 서울TV 핫토픽에 「“난 친사야” 성당에서 야동 촬영한 여성 논란」 제목의 기사와 함께 해당 동영상을 게재하였다. 동영상은 성당에서 야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 여성을 담고 있는데, 가슴이나 치부를 쓰다듬는 모습 등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으나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영상이 끝난 뒤 다양하게 볼 수 있는 포르노 영상이다. 이들 포르노의 수위는 제각각이다. 여성이 음란한 포즈를 취하며 옷을 벗으며 교성을 내고 몸을 뒤흔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포르노도 있다. 여성의 성기를 클로즈업한, 하드코어 성인물이 여과 없이 노출돼 있다. 성인에게도 선정적인 장면이 어린이들도 전혀 여과 없이 접근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게재한 대다수의 다른 영상물은 해당 동영상만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성인물은 해당 동영상이 게재된 유튜브와의 링크를 차단하지 못해 발생한 기술적인 문제로 보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 동영상을 포함한 성인물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방치한 행위는 관계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유튜브와 아웃링크돼 동영상의 내용은 수시로 바뀌고 있으나, 신속한 차단조치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행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3019 신문윤리강령 위반 세계닷컴 발행인 차 준 영

〈주문〉

세계닷컴(segye.com) 2015년 2월 24일자 「[영상] IS 참수 따라한 이집트 소년들 '충격」」 기사의 영상 편집에 대하여 '경고'한다. 세계닷컴은 이 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48시간 게재해야 한다.

〈이유〉

1. 세계닷컴의 위 적시 영상 편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상] IS 참수 따라한 이집트 소년들 ‘충격’』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의 참수 장면을 따라한 이집트 소년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

최근 유튜브에 게재된 24초 분량의 영상은 무릎 꿇은 소년 2명과 이들을 둘러싼 다른 소년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외치는 또 다른 소년 등 총 7명의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 속 지도자 역할을 맡은 소년은 나무막대기를 든 채 “우리는 어린이와 여자, 노인들을 죽인다”고 외쳤다. 이어 “우리는 마을의 모든 젊은이를 죽이기로 했다”며 “저들을 죽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년이 말한 ‘저들’이란 뒤편에서 인질역할을 하는 소년들을 가리킨다.

지도자의 ‘명령’이 떨어지자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소년 2명이 무릎 꿇은 소년들을 나무막대기로 죽이는 시늉을 했다. 바닥에 쓰러지는 소년들의 모습과 함께 영상은 끝난다.

영상은 이집트 북부의 공업도시 엘마할라 엘쿠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게시 시점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집트의 콥트교도가 집단 참수된 15일 이후로 추정된다. 페이스북에서 퍼지는 영상 게시자는 이집트의 프리랜서 기자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IS의 잔학성이 아이들에게까지 물든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김○○ 기자 kim*****@segye.com

사진=유튜브 영상화면 캡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2/24/20150224000939.html>〉

※ 해당 영상 종료후 나타난 잔혹 영상 캡처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IS의 잔학성이 아이들에게까지 물든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김종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유튜브 영상화면 캡처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IS의 잔학성이 아이들에게까지 물든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김종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유튜브 영상화면 캡처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IS의 잔학성이 아이들에게까지 물든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김종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유튜브 영상화면 캡처

〈이상 캡처시각 2. 24. 12:56〉



〈캡처시각 3. 4. 17:05〉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캡처 영상은 세계일보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오늘의 HOT뉴스〉 코너 「[영상] IS 참수 따라한 이집트 소년들 '충격'」 제목의 기사 내에 있는 영상이 종료한 뒤 나타난 것이다. 기사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의 참수 장면을 따라한 이집트 소년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이지만, 해당 영상 시청 종료 후 IS의 실제 참수장면은 물론 세계를 놀라게 했던 요르단 조종사의 화형 영상까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소년들이 IS의 참수 장면을 따라하는 해당 영상이 끝난 뒤엔 아웃링크된 유튜브에서 각종 잔혹 행위 영상이 이어지는데, 특히 IS가 요르단 조종사를 화형하는 9분 가량의 영상은 참혹하고도 끔찍하다. 참수 영상에는 잘린 머리를 숨진 사람의 가슴에 올려 놓은 장면까지 있다.

IS가 공개한 요르단 조종사의 화형 영상은 전세계를 충격에 안겼다. 당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폭스 뉴스 등 일부 매체가 이슬람 테러리즘의 야만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어 산채로 불태워지고 있는 순간의 인질을 보여주는 캡처 이미지를 방영한 데 이어 화형하는 영상을 통째로 소개해 다른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폭스 뉴스가 이 영상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했다면서 알카에다와 IS의 선전조직에 협력한 셈이라고 비난하는 등 비판적 논조의 보도가 잇따랐다.

그러나 대부분의 매체들은 잔혹한 죽음의 근접 이미지를 보여주어서는 안된다는 전통적 판단에 따라 화형 장면이 나오기 이전의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사용했으며, IS에 억류되기 이전 군복을 입은 사진(워싱턴포스트), 인질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가족들이 든 그의 사진(AP 통신), 화염이 일어나기 이전에 쇠창살 밖에 서 있는 조종사의 모습 사진(뉴욕타임스) 등 직접적인 노출을 꺼렸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동영상은 물론 화염에 휩싸인 조종사의 영상 캡처 화면을 보도한 언론사는 거의 없다. 이렇듯 전 세계 언론들이 화형 영상 보도와 관련, 고심한 흔적이 역력한 상황에서 세계닷컴의 영상 노출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영상 편집 담당자의 고의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유가 어떠한지 간에 이런 영상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언론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따라서 위 영상편집은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 「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캡처시각 3. 4. 17:05〉

▲ 2014-1130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문〉

서울신문 2014년 4월 10일자 19면 「웃긴데 슬프다 88만원 세대의 선택 아닌 선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방송사 PD 시험을 준비하다 공공기관의 6개월 인턴사원으로 들어간 호찬(백중환).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부서의 주말 등산 행사까지 참석하며 열성을 보이던 그는 어느 날 정직원 입사를 권유받는다. 호찬은 고민 끝에 꿈을 포기하고 안정된 직장에 입사하기로 결심했지만 낙하산으로 영똥한 여직원이 신입사원으로 채용되자 다시 인턴으로 주저앉는다.

노조지부장은 노조 차원에서 문제 삼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 역시 조직 내의 알력 다툼일 뿐. 넉넉지 못한 가정 형편에 정규직 채용이 좌절된 사실을 가족에게 밝히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던 호찬은 퇴사를 결심한다. 그런데 그때 또 한번의 정규직 제안을 받고 10분 안에 일생일대의 결정을 해야 할 기로에 놓인다.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BIFF) 명예집행위원장이 프로듀서를 맡아 화제가 된 독립영화 ‘10분’은 청년 실업을 소재로 직장 생활의 서글픈 현실을 꼬집은 블랙 코미디 느낌의 드라마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은 ‘88만원 세대’가 비정규직으로 처음 맞닥뜨린 사회에서 권력에 또다시 굴복하게 되는 상황을 긴장감 있게 그렸다. (중략)

무엇보다 탄탄한 스토리 텔링에 섬세한 심리 묘사가 돋보인다. 덕분에 감정이입하기 쉽다. 감독이 실제로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데다 기회주의, 이기주의, 복지부동 등 조직사회에서 흔히 만나는 인간

군상이 입체적으로 표현됐기 때문이다. 영화 속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웃고 있어도 슬프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화면이 다소 거칠고 편집이 매끄럽지 않은 단점은 있지만 덕분에 영화적 리얼리즘은 더 생생히 살았다. (후략)』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410019007>)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개봉을 앞두고 화제가 되고 있는 독립영화 ‘10분’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 영화가 청년 실업을 소재로 직장 생활의 서글픈 현실을 설득력 있게 그렸다고 평가했는데, 문제는 기사 제목의 ‘웃긴데’라는 표현이다.

위 기사 본문에는 『영화 속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웃고 있어도 슬프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라는 문장이 있고, 편집자는 이를 근거로 제목에 ‘웃긴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웃긴데’는 우리말에서 쓰지 않는 잘못된 표현이다. 제목에서 사용한 ‘~는데’는 형용사에 붙여 사용하는 어미이며 ‘웃기다’와 같은 동사에는 ‘~는데’를 사용해야 옳다. 따라서 제목의 ‘웃긴데’는 ‘웃기는데’라고 표현해야 우리 어법에 맞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신문기사의 오자를 지적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 제목의 ‘웃긴데’라는 표현은 요즘 연예인들이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우리말 오용 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표현이다. 그런데 신문이 이처럼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기는커녕 다른 면도 아닌 문화면 기사의 제목에 반영한다는 것은 문화 창달이라는 신문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23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스포츠경향 발행인 송 영 승
2.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문〉

스포츠경향 2014년 7월 18·19일자 1면 「응급 포수, 한국야구 웃픈 현실」 기사의 제목, 東亞日報 8월 13일자 A24면 「스펙0」 인생의 웃픈<웃기고 슬픈> 청춘백서」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스포츠경향,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스포츠경향)= 『지난 12일 광주 KIA-롯데전, 9회말 1사 때 롯데 포수 강민호가 직전 당한 사구 후유증으로 교체됐다. 엔트리에 남은 포수는 없었다. 부라 부라 최준석이 마스크를 썼다. 프로텍터도, 마스크도 꼭 끼었지만, ‘전직 포수’답게 무난하게 경기를 이끌었다. 10회에는 발빠른 주자 김주찬의 도루를 저지하기도 했다. 다음날 최준석은 “다시 포수를 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최대성공은 정말 빠르더라”라며 웃었다.

2014시즌 프로야구 화두 중 하나는 최준석과 같은 ‘응급 포수’였다. 2014 프로야구가 전반기를 치르는 동안 9개구단은 모두 합해 44명의 선수가 마스크를 썼다. 이 중에는 주포지션이 포수가 아닌 일반 야수인 선수들이 8명이나 섞였다. 넥센 로티노를 비롯, 삼성 최형우, NC 권희동, LG 박경수 등이 ‘응급 포수’로 활약했다.

●누가 ‘응급 포수’가 되나

프로야구 1군 엔트리 26명 중에는 대개 포수가 2명씩 포함된다. 이들 2명이 경기 중 부상이나 공격력 강화 등의 이유로 교체되면 야수 중 한 명이 포수 마스크를 써야 한다. 우선 ‘전직 포수’들이 1순위다. 롯데 최준석, 삼성 최형우, LG

채은성 등은 입단할 때 포수였다. 넥센 로티노는 외야수로 등록돼 있지만 메이저리그에서도 포수로 출전한 경험이 있다.

프로 입단 전 포수를 해 봤던 선수들이 2순위다. NC 권희동은 경주고 2학년 때까지 포수로 뛰었고, LG 박경수도 중학교 때까지 포수로 뛰었다. 이도저도 안 되면, 내야수들이 기용된다. 빠른 타구 처리에 능한 3루수들이 주목받는다.(후략)』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407171723043>

(東亞日報)= 『“제대한 지 5일 된 상고머리 복학생이 캠퍼스에서 족구를 한다.” “나부대대한 슷총각 백수가 신체를 바꿔치기해 온갖 여성을 유혹한다.” 이 무슨 ‘족구하는’ 소리가 싶겠지만 당당히 출사표를 던진 영화 2편의 스토리라인이다. 7일 소(少)개봉한 ‘슷호구’와 21일 뒤이을 ‘족구왕’은 걸만 보자면 생똥맞고 지질한 C급 영화다. A급은커녕 요즘 대세인 B급 마이너 영화에 끼기도 힘들다. 허나 성수기 대작의 장벽을 헤치고 몇 군데 상영하지도 않는 영화들을 찾는 관객이라면 성배를 찾은 인디애나 존스의 감흥을 만끽할지도 모르겠다. 이미 각종 영화제에서 한국 독립영화의 유쾌한 반란으로 입소문을 탔던 두 영화의 ‘쭈쭈바’ 같은 청춘 백서를 들춰보자.

●서툴고 투박해도 진정성은 넘실댄다

최근 ‘명량’이 한국 영화 흥행사를 새로 쓰고 있듯 슷호구도 범접하기 힘든 기록을 세운 작품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극장에 걸린 가장 제작비가 적게 든 장편영화’로.

“단돈 100만 원으로” 영화에 뛰어든 백승기 감독은 촬영, 편집을 끝낸 뒤 통장에 30만 원을 남겼다. 일단 출연료가 제로였다. 주인공은 본인이 맡았고 나머지 배역은 지인이거나 꼬드기거나. 영화 속 부모도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나오셨다.

섭외비나 운영비도 안 들었다. 감독이 8세 때부터 산 인천의 동네 서점과 노래방 등이 “누구네 집 아들내미가 영화 찍는다”며 공짜로 장소를 내줬다. 식당

아주머니들은 힘내라며 밥값을 받지 않았다. 촬영장비는 DSLR 카메라로 버렸다.

이러다 보니 때깔은 당연히 후지다. 연기도 어색하고, 편집은 조악하다. 내용은 더 구리다. 서른 살이 되도록 연애도 취직도 못해 본 주인공 원준은 안타까운 외모와 스펙 0%의 ‘숫총각+호구’. 성경험은커녕 여자들에게 맞고 다닌다. 그런데 웬 생명공학 박사가 섹시매력 충만한 ‘아바타’를 개발했다며 실험 대상으로 원준을 유혹한다.

숫호구는 개연성도 설득력도 떨어지지만 웃기고 슬프다. 뭘 해도 나아질 게 없는 청춘일지언정 진심과 사랑은 소중할 터. 하지만 그 사랑을 위해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존재조차 부정해야 한다면 그건 올바른 선택일까. 특히 처연하기까지 한 영화의 끝자락은 울림이 크다. 감독의 호기로운 반문이 스크린을 꽉 채운다. “허술하면, 어색하면 왜 안 되지?”(후략)』

<<http://news.donga.com/3/all/20140813/65713633/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경향의 위 기사는 프로야구 구단들이 올 시즌 경기에서 일반 야수를 ‘응급 포수’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었으나 부상 위험 등 부작용도 있어 제대로 된 포수 자원 육성이 필요하다는 기획 기사다.

東亞日報는 젊은 남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독립영화 두 편을 소개하는 내용의 기사를 문화면에 보도했다.

그런데 두 신문 편집자는 기사 제목을 각각 「응급 포수, 한국야구 웃픈 현실」, 「‘스펙0’ 인생의 웃픈(웃기고 슬픈) 청춘백서」로 ‘웃픈’이라는 표현을 넣어 달았다. 스포츠경향 기사에는 본문 중 어디에도 ‘웃픈’이라는 표현이 없으며, 東亞日報 기사는 「숫호구는 개연성도 설득력도 떨어지지만 웃기고 슬프다」는 문장에서 제목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웃픈’이라는 표현은 표준어가 아니다. 요즘 연예인들이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웃음이 나는데 슬픈’ 또는 ‘웃기고 슬픈’이라는 복합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며 사용이 늘고 있지만 우리말의 잘못된 쓰임새 가운데 대

표적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신문이 이처럼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기는커녕 1면 또는 문화면 기사의 제목에 사용하는 것은 문화 창달이라는 신문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7조 「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236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문〉

매일경제 2014년 7월 2일자 A6면 「MBN은 종편 ‘신기록 제조기’…프라임시 간대도 1위」, A7면 「몽치면 더 세다…‘종편 파이’ 키우고 방송의 맛 더했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매일경제는 「MBN 월간 시청률 2% 돌파」라는 면 제목 아래 2개의 기획면을 할애해 관계사인 종합편성채널 MBN의 시청률과 프로그램을 대서특필했다. 매일경제는 A6면에선 「케이블 TV 20년 역사상 첫 2% 넘어」, 「시청률 상승 이끈 3대 키워드」, 「월간 시청률 2%의 의미」라는 제목의 3건의 기사를 게재하고, 장점 위주로 보도했다. 해당 매체의 프로그램인 ‘나는 자연인이다’와 ‘어울림’ 방송 사진을 실었다. A7면에선 ‘종편 4사 시청률’ ‘상반기 종편 3대 히트상품’ ‘제2 전성기 맞은 종편스타들’ 제목의 3건의 기사를 게재했다. 매일경제는 이 지면을 통해 종편 4사를 소개하면서 “종합편성채널은 출범 3년째를 맞아 지상파 채널을 견제하는 태풍의 눈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종편 4사의 인기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그러나 매경은 관계사인 MBN의 프로그램인 ‘엄지의 제왕’ ‘황금알’의 사진을 크게 실는 등 MBN 홍보에 치중했다. 또 면 제목을 아예 「MBN 월간 시청률 2% 돌파」로 달았다.

편집자 역시 각각 광고 문구를 연상케 하는 제목을 달았다.

이처럼 관계사를 위해 일방적인 홍보성 지면 제작태도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이에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340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스포츠경향 발행인 송 영 승
2.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3. 한겨레 발행인 정 영 무
4.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주문〉

스포츠경향 2014년 11월 3일자 12면 「아이폰6 대란… “졸지에 호갱님 됐다”」 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 11월 4일자 2면 「이번엔 ‘리베이트’ 수술… 그래도 호갱님 못막는다」 기사의 제목, 한겨레 11월 13일자 19면 「상담 5분만에 요금이 절반으로/“나도 호갱이었다”」 기사의 제목, 국민일보 11월 14일자 19면 「호갱님<호구+고객님> 면하려면… 유·무선 뭉치고 가입 보조금 받고 할인 혜택 따져라」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경향, 머니투데이, 한겨레,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스포츠경향)= 『기습적인 ‘아이폰6 대란’이 ‘호갱님 논란’을 재현시키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에 기름을 들이부었다.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에 따르면 2일 새벽 서울의 일부 휴대폰 판매점에서 ‘아이폰6 16GB’(출고가 78만9800원)를 적게는 10만원대에 판매해 소비자들이 밤새 줄을 서는 진풍경이 다시 연출됐다. 시행 한 달 만에 단통법 자체를 무력화 시킨 ‘대란’이 발생한 셈이다.

현재 아이폰6 16GB에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평균 20만원선. SK텔레콤은(LTE100요금제 기준)최대 17만원, KT는 25만원(완전무한129 요금제), LG 유플러스는 18만5000원(무한대 89.9요금제)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 단통법상 보조금 상한선인 34만5000원(대리점 재량 보조금 포함)을 적용해도 44만4800원이 최저가가 된다.

하지만 이날 새벽 일부 판매점은 이통사 보조금의 약 3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판매점은 현금완납(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 등 수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온라인에도 “요금제에 상관없이 아이폰6를 15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이 등장했다. 온라인 판매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6의 경우 64GB와 128GB로 예약이 몰려 이들 모델은 품귀 현상을 빚지만 16GB 모델은 재고가 많이 남았다”며 “일부 판매점들이 16GB 모델을 많이 확보했다가 물량이 남자 이를 처분하고자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날 ‘대란’에 따라 단통법 시행 목적이 무색하게도 일부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연출됐다. ‘아이폰6’를 먼저 구매한 소비자들은 “어렵게 예약까지 하며 아이폰을 샀는데 졸지에 호갱님이 됐다” “이럴거면 단통법 뭐하러 하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후략)』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411021656563〉

(머니투데이)= 『이동통신사나 단말기제조사나 유통점에 지급하는 ‘리베이

트(대리점 관리 수수료)'가 도마에 올랐다. 통신사들이 기습적으로 판매점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를 70만원까지 상향조정, 결국 판매점이 불법을 저지르도록 조장했다는 비난을 받는다.(중략)

일부에선 보조금 상한선을 상향조정하거나 판매점의 추가 지급범위를 늘리자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그런다 해도 '호갱님' 양산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수수료가 얼마가 됐든 시장에서 경쟁하는 판매점들이 '공시'대로 움직일 것을 기대하는 건 모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통 3사가 판매 수수료를 급작스레 올려 불법을 '방조했다'고 본다. 더불어 주말 전산 개통 책임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해당 유통점들은 물론 이통사들에게도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10317300907134>〉

(한겨레)= 『“헐~!” “대~박!”

나도 모르게 연거푸 탄식이 쏟아졌다. 어찌 이럴 수가! 에스케이텔레콤(SKT) 이동통신을 이용중인 나는 지난 몇년간 '호갱'(호구 고객) 중에서도 '상호갱'이었다. 에스케이텔레콤 지점 상담원과 마주앉아 신분증을 건네고 5분 정도의 상담과 3장의 서류에 전화번호·생년월일·이름을 쓰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치는 순간, 내 이동통신 요금은 이전에 견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용행태가 바뀌지 않는 것을 전제로, 월 5만원대에서 2만원대(이하 부가세 제외)로 낮아졌다.

거기다 요금제를 월 정액요금이 1000원 높은 것으로 바꾸면서 앞으로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인 우리 가족끼리는 추가 통화료 걱정 없이 무제한 통화를 할 수 있게 됐다.

■ “나는 그동안 '상호갱'이었다” 〈한겨레〉에서만도 20년 가까이 통신분야를 담당하면서 '통신요금 절감하는 방법'으로 대리점이나 고객센터를 자주 들러볼 것을 권하는 기사를 꽤 여러차례 썼다. 하지만 정작 나는 이를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다 3년여만에 '일'을 만들어 에스케이텔레콤 지점을 찾았다.(후략)』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4160.html〉

(국민일보)= 『통신사 이동만으로 인터넷과 휴대전화 요금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뿐 아니라 사은품 등의 혜택을 챙기는 '통신 재테크 족(族)'이 늘고 있다. 통신사들은 저마다 초고속 인터넷이나 인터넷 TV(IPTV), 집 전화 등 유선상품에 휴대전화 서비스를 묶은 '결합 상품'을 내놓고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요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보조금 대신 유선 보조금과 혜택을 늘리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어 소비자들은 가입 전 꼼꼼하게 혜택을 따져보는 것만으로도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다.

◆혹시 나도 '호갱님?' 혜택 따져봐야= 비싼 가격을 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를 일컬어 '호갱님(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이라고 한다. 호갱님이란 말은 주로 단통법 시행 이전 휴대전화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던 때 자주 등장했지만 유선 상품에도 호갱님은 존재한다.(후략)』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44644>〉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경향, 머니투데이, 한겨레, 국민일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문제점이나 유·무선 통신상품을 다룬 위 기사에서 각각 '호갱' 또는 '호갱님' 표현을 넣어 큰 제목을 달았다.

그런데 '호갱'이라는 표현은 표준어가 아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또는 젊은 이들 사이에서 어리숙한 고객, 즉 '호구+고객'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우리말의 잘못된 쓰임새 가운데 대표적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게다가 '호갱'은 정상적인 줄임말 형태로도 보기 어렵다.

신문이 이처럼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기는커녕 주요 기사의 제목에 사용하는 것은 문화 창달이라는 신문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7조 「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1013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문〉

매일경제 2015년 1월 6일자 A3면 「'벤붕' 빠진 주변상가」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 상가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이상윤 씨(가명·50)는 최근 홀을 담당하는 직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 주변에 있던 신용보증기금이 30년 만에 사옥을 대구혁신도시로 옮기면서 이씨의 가게를 찾는 손님이 확 줄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그동안 경기를 거의 타지 않았는데 최근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외환위기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고 말했다.

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본격화하면서 주변 상가들이 개업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공기업 직원이라는 든든한 단골손님을 잃게 되자 매상이 급감하면서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 지역 상권 특성상 상당수가 음식점으로 구성돼 있어 1~2개월만 공동화(空洞化)현상이 지속돼도 상인들이 매출 감소를 버티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이 새 주인이 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용지 주변 먹자골목 상가는 한겨울에 쫄쫄 얼어붙고 있다. 한전 본사가 들어선 1980년대 중·후반 이후 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 직원들 덕분에 굴곡 없이 장사를 했지만 이들이 지방으로 줄줄이 떠나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줄고 이달 매상이 반 토막 날 지경이다.

한전 용지 상권은 100여 개의 가게로 이뤄져 있다. 옆에 아홉은 건물에 세 들어 장사한다. 한전 용지에 현대차그룹이 들어서면 황금 상권이 되는 게 확실하지만 개발하려면 최소 8~10년간 공동화가 불가피하다 보니 수백만 원의 임차료를 감당하기 벅잡다. 최근 한전 용지 뒤편 터줏대감인 한식전문점이 문을 닫았다. 들어오려는 임차인이 없어 권리금은 한 푼도 못 건졌다. 김태문 상가번영회 총무는 “한전 용지 개발이라는 대형 호재 때문에 임대료를 낮추려는 건물주는 거의 없다”며 “권리금이라도 챙겨서 빠져 나갈 수 있으면 당장 떠나고 싶다는 상인들이 수도룩하다”고 말했다.

여의도 상권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가뜩이나 IFC몰, 영등포 타임스퀘어 등 대형 쇼핑몰에 유동 인구를 빼앗겨 손님이 줄었는데 방송사뿐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떠나면서 활기를 잃고 있다. 이 일대 상가 점포는 한때 웃돈을 얹어 주고도 구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웃돈은 아예 사라지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곳이 등장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오거리 일대도 비상이 걸렸다. 신용보증기금 옛 사옥이 당초 매각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신보가 3개층을 지사로 활용하는 건물 부분 매각에 나서면서 인수자가 나서지 않자 올해 '유령 빌딩' 신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보 사옥 앞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 모씨(37)는 “매출이 예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가게는 내놔도 나가지 않고 월세만 비싸 여기 상인들 모두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상권에 필수인 배후 수요가 줄어들자 강남과 달리 이렇다 할 부동산 호재도 없는 여의도동과 공덕동 상권은 임대료가 하락세다.

여의도동 중개업소에 따르면 옛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옥 주변 상가 점포 임대료는 1층 전용면적 43㎡ 기준 보증금 4800만원에 월세 290만원 선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이전하기 전보다 보증금은 200만~500만원, 월세는 10만~30만원가량 각각 떨어졌으며 권리금도 2000만~3000만원 내렸다.

공덕동 일대도 신용보증기금이 떠나기 전에는 1층 전용면적 33㎡ 기준 보증금 5000만~1억1000만원에 월세 410만원~470만원 선이었지만 현재 보증금 4500만~1억원에 월세 370만~450만원까지 하락했다. 권리금도 1000만~2000

만원 내린 4000만~1억2000만원 수준이다. 공덕동 A공인 관계자는 “지하층부터 장사를 접는 상인들이 나타나면서 공실이 발생하고 매물이 두 배가량 늘었다”며 “상가 임대료와 권리금이 20%까지 떨어진 점포도 있다”고 말했다.』

<http://news.mk.co.kr/news_forward.php?domain=news&no=13049&year=2015>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는 위 기사에 본문에도 없는 ‘멘붕’ 표현을 넣어 큰 제목을 달았다. 그런데 ‘멘붕’이라는 표현은 표준어가 아니다. ‘멘붕’은 영어 ‘멘탈(mental)’과 우리말 ‘붕괴’를 합쳐서 줄임말 형태로 만든 표현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우리말의 잘못된 쓰임새 가운데 대표적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또 ‘멘붕’이라는 표현이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위 기사가 다른 상황에 대해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과장하는 수준을 넘어 문제의 정도를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다.

신문이 이처럼 잘못된 표현들을 바로잡기는커녕 주요 기사의 제목에 적절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문화 창달이라는 신문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7조 「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39 신문윤리강령 위반
쿠키뉴스 발행인 변재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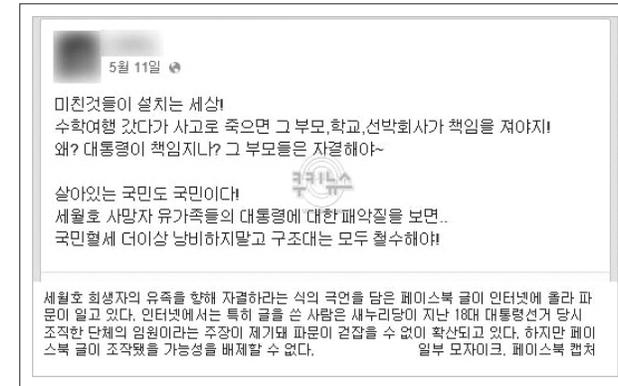
<주문>

쿠키뉴스(kukinews.com) 2014년 5월 13일자 「“세월호 유족은 자결하라” 페이스북 극언 파문」 제목의 온라인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쿠키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단독] “세월호 유족은 자결하라” 페이스북 극언 파문



[쿠키 사회] 세월호 희생자의 유족을 향해 자결하라는 식의 극언을 담은 페이스북 글이 인터넷에 올라 파문이 일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특히 글을 쓴 사람은 새누리당이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조직한 단체의 임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 글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논란은 13일 A씨가 페이스북에 썼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 11일 작성한 글에서 일부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린다고 하며 막말을 써가며 유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친 것들이 설치는 세상! 수학여행 갔다가 사고로 죽으면 그 부모, 학교, 선박회사가 책임을 져야지! 왜? 대통령이 책임지나? 그 부모들은 자결해야~”라고 적었다.

그는 유가족의 행동은 패악질이며 구조대는 모두 철수해야 한다는 막말로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살아있는 국민도 국민이다! 세월호 사망자 유가족들의 대통령에 대

한 폐약질을 보면, 국민혈세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구조대는 모두 철수해야!”라고 썼다.

네티즌들은 경악하고 있다. A씨 페이스북에는 “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양심을 가지고 살아요” “미친 사람은 당신이다”라는 식의 비난 댓글이 수백여건 달렸다.

발끈한 네티즌들은 A씨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퍼 나르기도 했다. 인터넷에 나도는 신상정보를 보면 A씨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에 거주하며 KBS에 근무한 것으로 돼 있다. 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도 적혀 있다. 2012년 조직됐던 ‘국민안전운동본부’의 조직위원장이라는 직함도 적혀 있다.

국민안전운동본부는 클린 인터넷 세상 만들기, 범죄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강화, 피해자 중심의 인권보호 및 지원, 응급의료체계 구축, 안전사회를 위한 범국민 운동 전개 등을 주요역점과제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페이스북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대구 출생으로 KBS 출신에다 새누리당 조직 임원 등의 신상정보도 누군가 짜깁기한 것 같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는 사실 확인을 위해 A씨와 접촉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 기자 kit****@kmib.co.kr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8318324&code=41121211>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팩트는 뉴스를 구성하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 객관성이다. 뉴스 생산 관행 또는 저널리스트의 사회화 기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객관성 보장을 평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런 측면에서 “세월호 유족은 자결하라” 페이스북 극언 파문」 제목의 기사는 기본 구성요소인 객관적 팩트가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기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기사는 세월호 희생자의 유족을 향해 자결하라는 식의 극언을 담은

페이스북 글이 인터넷에 올라 파문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A씨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퍼나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 누가, 왜,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이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단독」이란 자부심의 표현까지 곁들여 보도한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단순히 인터넷에 나도는 이야기를 보도하는 것은 공익 추구라는 언론의 대 사회적 의제 설정 기능에도 맞지 않는다. 팩트가 뚜렷한 객관적인 보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86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4년 9월 18일자 「미너선수 3명과 관계...“선수촌은 방탕 그 자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캡처시각 9. 18. 12:30>

『미녀선수 3명과 성관계…“선수촌은 방탕 그 자체”

‘데이트 앱’에 콘돔까지…밤에 더 불타는 소치, 우리 선수들은 ‘초연’

※ 이 기사는 2014년 2월 15일 인터넷 서울신문에 보도됐던 기사입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선수촌 선수들의 생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운동으로 단련된 ‘선남선녀’들이 한 곳에 모인지라 이들 사이에 ‘정분’이 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다. 선수촌 곳곳이 국적을 불문하고 짝을 찾는 남녀 선수들로 가득하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더 스마트해진 ‘짝 찾기’…소치는 지금 ‘틴더’ 열풍

설상(雪上) 경기가 열리는 소치 산악클러스터 선수촌의 선수들은 경기의 중압감을 해소할 유희거리를 찾기에 열심이다.

이번 대회에 신설된 스노보드 슬로프스타일 종목에서 여자 초대 챔피언에 오른 제이미 앤더슨(23·미국)은 최근 미국 ‘US위클리’와의 인터뷰에서 답답한 선수촌 생활을 소개하면서 “여기는 나가서 놀 데도 없는 데다 설령 있다고 해도 너무 멀다”고 하소연했다. 앤더슨은 “요즘 선수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인 ‘틴더’(Tinder)를 활용해 데이트 상대를 찾곤 한다”고 말했다.

앤더슨은 “틴더를 쓰면 선수촌에 있는 거의 모든 선수를 볼 수 있어 데이트 상대를 만나는 데 효율적”이라면서 “산악클러스터에는 ‘귀요미’(cuties)도 약간 있더라”고 전했다. 몇 년 전 미국의 수영 스타 라이언 록티가 “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70·75%가 선수촌에서 성관계를 즐긴다”고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올레이 화장품의 홍보대사이기도 한 앤더슨은 그러나 “난 올림픽에 집중하려고 틴더의 계정을 없앴다”고 말했다.

지난해 등장한 이 앱은 일정한 공간에 함께 있는 이들의 사진을 찾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앱의 원조 격인 ‘그라인더’(Grindr)는 동성애자들이 짝을 구할 때 곧잘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는 러시아의 ‘반(反)동성애법’ 추진에 영향받은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 폐쇄된 상태다.

●소치에 뿌려진 콘돔 10만개, 이것도 모자라다는데…

올림픽 기간 중 선수촌에는 피임과 성병 예방을 위해 콘돔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차원에서 뿌려진다. 미국 폭스스포츠에 따르면 이번에 소치에 배포된 콘돔은 모두 10만개에 이른다. 이 콘돔은 IOC가 제공한 것이다.

IOC는 미국 연예뉴스 전문매체 TMZ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선수촌 내 콘돔 배포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감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 17일간의 축제에 뿌려지는 양 치고는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계와 동계 대회를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헝기왕성한 젊은이들이 모이는 올림픽에서는 늘 많은 양의 콘돔이 소모된다.

폭스스포츠는 “수천명에 이르는 운동 선수들이 한 공간에 2주 이상 모인 덕에 선수촌에서는 모종의 ‘사회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2012년 치러졌던 런던 올림픽 당시에는 조직위원회가 선수 한 명당 15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15만개의 콘돔을 구비했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는 10만개의 콘돔이 뿌려졌으나 1주일 만에 동나 추가 공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8 베이징 대회에서는 선수촌에 뿌려진 10만개를 포함해 시내 호텔 등 모두 40만개의 콘돔이 무료로 배포됐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미국 유도 대표로 뛰고 현재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약 중인 론다 라우시는 “올림픽 선수촌은 방탕 그 자체”라고 증언했다. 2년 전 런던 올림픽 당시 육상 단거리 3연패를 달성한 우사인 볼트(자메이카)는 100m 우승 직후 스웨덴 여자 배구 대표팀 3명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또 ‘드림팀’의 일원으로 미국 농구 대표팀에 탑승한 르브론 제임스가 자국 여자 수영 선수에게 공공연히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해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비교적 조용한 한국 선수단…김연아는 아예 별도 숙소 잡아

이쯤되면 우리 선수들의 안위(?)도 걱정될 법하다. 특히 이번에는 ‘피겨 여왕’ 김연아나 ‘빙속 여제’ 이상화 같은 이미 알려진 미녀 스타들 외에도 켈링의

이슬비, 쇼트트랙의 박승희 등 떠오르는 ‘얼짱 선수’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고 있다. 개방적인 외국 선수들에 비해 몸가짐이 단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려한 실력과 외모로 소치에서 단연 눈에 띄는 김연아는 아예 선수촌에 머물지를 않고 있다. 김연아는 지난해 밴쿠버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숙소에 머물고 있다. 김연아와 함께 움직이는 신혜숙·류정현 코치, 어머니 박미희씨, 전담 물리치료사 등 스태프 등이 선수촌에 전부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김연아는 지난 12일 소치행 비행기를 타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함께 지낼 트레이너 선생님이 선수촌에 들어가지 못해 따로 방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김연아의 숙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비밀에 부쳐진 상태다. 김연아는 밴쿠버 대회 당시 숙소가 언론에 공개된 뒤 지나친 관심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었다.

맹○○ 기자 gu**@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918500096>>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인천 아시안 게임 선수촌 소식을 전하면서 「미녀선수 3명과 관계…“선수촌은 방탕 그 자체”」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제목만 본다면 아시안 게임 선수촌은 방탕 그 자체로, 누군가는 미녀 선수 3명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는 아시안 게임 관련내용이 아니다. 기사 머리에 참고표를 한 뒤 2014년 2월 15일자 인터넷 서울신문 기사라고 밝히고 있다. 소치 동계올림픽 때 쓴 지난 기사를 마치 아시안게임에 대한 기사인 것처럼 게재한 것이다.

기사 머리에서 이 사실을 밝히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목에 현혹돼 기사를 열고 들어간 독자를 기만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콘돔이 하루 5000개도 모자란다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 톱기사에 따라가는 기사 형태로 이 기사를 보도한 탓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아시안게임 선수촌이 방탕 그 자체

라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면서 아시안게임 조직위와 선수를 포함한 참가자의 명예 또한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7개월이나 지난 다른 스포츠 행사의 선정적인 기사로, 사실을 왜곡하면서 독자를 기만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을 포기한 것일 뿐 아니라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 신문윤리강령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이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302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선닷컴 발행인 김 찬

〈주문〉

조선닷컴(chosun.com) 2015년 2월 6일자 「[중년의 性] 여자를 절정에 이르게 하는 육체 안의 회로(回路) 멀티 오르가슴의 5大 공식!」 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조선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중년의 性] 여자를 절정에 이르게 하는 육체 안의 회로(回路)

멀티 오르가슴의 5大 공식!

글 | 김진국 《멀티를 선물하는 남자》 저자

사랑. 아무리 되뇌고 되새겨도 싫지 않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네 가슴을 한 없이 후벼 파고, 아련한 추억에 실려 상념에 잠기게 하는 그리움의 언어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거리는 단순합니다.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얘기할 때면

두 번이나 이혼 경력이 있는 심프슨 부인과의 사랑을 위해 왕위를 포기했던 영국의 윈저 공작을 떠올립니다.

죽음마저 초월하는 사랑 얘기로는 영화 <사의 찬미>를 언급하지요. 1926년 소프라노 윤심덕과 유부남이었던 극작가 김우진은 대한해협 바닷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러브스토리>에서는 시한부 인생에 직면한 연인(戀人)의 눈 장난을 보며 눈물을 지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는 반항하는 비비안 리를 들쳐안고 계단을 성큼 성큼 오른 뒤 침대에 내동댕이치는 클라크 게이블의 야수 같은 눈빛에 열광했고요. <라붐>을 본 후, 15세 소피 마르소의 청순함을 책받침에 고이 간직해 두기도 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사랑의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얼마 전 끝난 TV 조선 드라마 <최고의 결혼>에서는 결혼을 거부한 채 육아만 책임지겠다는 자발적 비혼모(非婚母)라는 파격적 소재를 다루었습니다. 남자에게는 정자만 기증 받은 채 여성 자신의 사회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아들과의 사랑만을 통해 나름의 삶을 살아가려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애플 사장 팀쿡이 동성애자라며 ‘커밍 아웃’을 해 세상을 놀라게 하더니, 가수 엘튼 존은 아예 21년간 연애해 오던 동성 파트너와 최근 정식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결혼식에서 화동(花童) 역할을 담당한 것은 대리모에 의해 출산한 두 아이였지요.

섹스 아노미 현상

요즘 젊은 세대는 상당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섹스에 있어서 매우 솔직하고 적극적인 편입니다. 소위 프리섹스(freesex)라 하는 서구 선진국에 근접해 있지요. 노래로도 유명한 ‘라면 먹고 가’란 말은 ‘우리 집에 들러서 섹스하고 가’라는 의미로 20대 젊은이들의 공통 은어입니다.

며칠 전 ‘제일기획’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양 3개국 젊은 여성의 가치관을 심층 분석한 ‘마이너리티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서울, 상하이, 도쿄에 사는 여성 9169명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이성에게 입맞춤이나 키스를 허용할 수 있다’는 여성이 상하이 5%, 도쿄 15%, 서울이 30%였습니다. ‘처음 만나서 성관계도 가능하다’는 여성은 상하이 1%, 도쿄 9%, 서울이 12%였습니다.

중국은 예전의 우리처럼 보수적인 데 반해,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일본마저 제쳤다는 사실은 무척 흥미롭습니다. 물론 이런 단순 수치가 모든 실상을 다 보여준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런데 요즘 인기 19금 프로인 <마녀사냥>을 보면 현대 젊은이들은 확실히 육체적인 면에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신적인 사랑을 갈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런 20대의 현상을 아노미(anomie·혼돈 상태 또는 구성원의 욕구나 행위의 無규제 상태)에 빗대어 ‘섹스 아노미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젊은이의 성에 대해서도 나중에 충분히 파헤치는 기회를 따로 가질 것입니다.

솔직히 현대 사회는 비단 젊은이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수없이 심리적 일탈 기제를 부여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자신이 정립한 올바른 가치관과 방향성으로 스스로를 통제해야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지요.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에게도 정신적 순수한 사랑이 사실은 가장 절대적 가치임을 입증해 주는 현상이 최근 나타났습니다.

님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公無渡河)

그예 님이 건너시더니(公竟渡河)

강물에 빠져 죽으시니(墮河而死)

아아, 이 일을 어찌하리오(當奈公何)

주지하다시피 ‘공무도하가’에서 물은 님과 나의 영원한 이별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표상되는 사랑하는 이와 의 돌이킬 수 없는 고별이지요.

<위낭소리>를 뛰어넘는 독립영화의 기적이 우리를 뭉클하게 합니다. 76년을 연인처럼 살았던 평범한 노(老)부부의 이별기를 다룬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그것입니다. 이들 노부부가 마당의 낙엽을 쓸다가 서로에게 뿌리며 장난치고, 나물을 씻다가 개울물을 텅기며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은 해맑기 그지없습니다. 병이 깊어진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기차 화통처럼 거칠어지자 할머니가

떠날 때 가벼우시라고 아궁이에 옷가지를 미리 태우는 장면은 감동의 압권입니다.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에게 할머니가 던진 말은 “먼저 가서 자리 잡고 기다려라”입니다. 바로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로 인해 이 영화는 ‘공무도하가’를 능가하는 감동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에게서는 죽음마저도 사랑을 완성하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서로의 영혼이 진정한 합체가 되게 해주는 사랑의 징검다리요, 완성인 것입니다.

한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영화를 보고 폭풍 눈물을 쏟아낸 대다수가 뜻밖에도 젊은 세대라는 점입니다. CGV 회원 기준 통계이긴 하지만, 관객의 연령대별 점유율은 20대가 51.7%, 30대가 19.6%, 40대가 13.4%입니다. 영화를 보고 나온 23세의 아가씨는 “저런 사랑을 하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히고, 25세의 총각은 “어릴 때 죽은 자식을 떠올리며 아동용 내복을 사는 할머니의 모습이 가장 인상 깊다”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여자의 비밀회로, 정신과 육체의 비밀 코드

젊은 세대가 이토록 열광하는 것은 아마도 영화 <건축학개론> 같은 첫사랑은 누구나 체험하지만, 이 영화 같은 끝사랑은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꼭 해보고 싶은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일 겁니다. 바로 할아버지의 죽음은 오히려 비극적(悲劇的) 엔딩이 아닌, 영원한 사랑이라는 해피엔딩인 것이지요.

이처럼 특히 진실한 사랑의 명제는 동서양과 세대를 초월해 모든 인간에게 내재한 영원한 욕망이요 소망일지 모릅니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그 절실함은 더 간절할 수 있습니다.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도 성별 통계에서는 20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단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떠나 여성에게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정신적 측면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제라는 사실입니다. 여성은 상대 남자가 가지는 마음의 진정성과 배려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진모영 감독도 진정한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장미꽃 천 송

이를 주고받는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배려와 습관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빠친 머리를 빗겨주거나 외출 시 신발을 돌려 놔주는 것 같은 사소한 일들이죠.

여성은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한 존재입니다. 아주 사소한 배려 하나에 쉽게 감동하고, 극히 미미한 무관심에 금세 토라져 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마음만 제대로 먹는다면 그녀를 사로잡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아직 그 비밀 버튼을 찾지 못했을 뿐, 여자의 정신과 육체 속에는 그들을 절정에 이르게 하는 정교하고도 오묘조밀한 회로(回路)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온갖 정성을 다해 그녀를 향한 사랑의 진정성이 가장 잘 표현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섹스입니다. 아내(연인)를 위한 사랑의 감정을 육체를 통해 제대로 표현함으로써 당신의 사랑은 비로소 완성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차대한 것이 바로 섹스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돌이켜보십시오. 아니 내심으로는 사랑하면서도 그것을 표출하고, 그럼으로써 그녀에게 느끼게 하고 믿음을 주었는지 되짚어보십시오. 우리 수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섹스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그녀의 비밀 코드를 읽어내고 최고의 기쁨을 선물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아나가야 합니다.

음핵 오르가슴의 優越性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잘만 하면 손쉽게 그 비밀 방정식을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그 미로를 탐색해 나가 봅시다.

여자의 오르가슴을 ‘음핵(陰核) 오르가슴’과 ‘질(膣) 오르가슴’으로 나눈 사람은 프로이트입니다. 그는 여성 성기의 해부학적 반응에 대해서는 몹시 정통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가진 편견 때문에 잘못된 고정관념을 후세(後世)에 남겼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성들은 여성들이 철저히 페니스만을 선망한다고 믿게 되었고, 삽입 성교에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성기 구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던 어린 시절의 자위(自慰)행

위 습관에서 비롯된 음핵 오르가슴을 유지하고 미성숙한 것일 뿐이라고 비하했습니다. 그는 클리토리스를 통한 성적(性的) 쾌락을 천하게 여겼고 심지어 클리토리스를 악마(惡魔)적인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성인이 된 뒤 남성의 페니스 삽입으로 인해 얻어지는 질 오르가슴이야말로 진정 성숙한 오르가슴이라고 찬양했습니다. 한마디로 질과 관련된 오르가슴이 보다 완성된 방식이고, 훨씬 더 강력하고 만족스러운 쾌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이론은 1950년 독일의 산부인과 의사 에르네스트 그레펜베르크가 여성의 질 속에 있는 지스팟(G-spot)을 발견했다고 발표함으로써 더 한층 힘을 얻는 듯했습니다. 지스팟의 실재(實在) 여부는 오늘날까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 당시부터 여성의 성적 쾌락의 열쇠라고 추앙받고 있지요.

하지만 그 이후 1950~1980년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각종 실험과 설문 조사 등을 통해 클리토리스(음핵)가 성적 쾌감의 핵심 부분으로 부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음핵의 직간접적 자극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질과 클리토리스가 자극에 있어 상호 긴밀하게 작용하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학자들은 음핵 오르가슴이든 질 오르가슴이든 어떤 하나를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평등 오르가슴을 내세웠고, 이는 지금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주장합니다.

“질 오르가슴도 매우 소중하지만, 클리토리스로 대표되는 여러 핫스팟과 신체 모든 부위를 정성껏 애무함으로써 얻어지는 음핵 오르가슴이야말로 여성들이 기대하는 최고의 희열이다. 음핵 오르가슴은 그 강도가 질 오르가슴보다 크고 지속적이어서 훨씬 우위의 쾌감이다. 또한 우리 수업의 궁극적 목표인 멀티 오르가슴에 도달하기 위한 비결로도 가장 유리하고 적합한 방식이다.”

한마디로 말해 이제 ‘음핵 오르가슴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손·입·혀를 이용해 애무를 섬세하게 잘하는 남자가 더욱 사랑을 받고, 여자의 마음을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 멀티 오르가슴은 피스톤 운동을 통

한 지스팟 자극으로도 도달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섬세한 애무를 통한 것이 훨씬 손쉽고 매력적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여성은 격렬한 피스톤 운동보다 부드럽고 달콤한 애무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愛撫 중심 섹스의 놀라움과 바른 이해

자신의 페니스 운동에 자신감을 가진 ‘좀 하는 남자’들은 쉽게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 당신에게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페니스 운동만으로 멀티 오르가슴을 선물할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페니스 운동만으로도 멀티 오르가슴을 준 기억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핫스팟 애무 위주의 섹스를 통해 멀티 오르가슴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실제 여성들은 그 달콤하고 감미로운 매혹에 쉽게 빠져들며, 많은 시간 황홀한 자극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이렇게 단정 지어 말하면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 페니스가 남성의 소중한 심벌이라는 점은 일단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들은 은연중 ‘남근 선망(男根 羨望)’을 가지며, 페니스를 통한 애무나 삽입 성교를 선호하긴 합니다. 펠라티오를 해주면서 행복해하는 여성도 상당수고요. 무엇보다 여성들 역시 오랜 세월 페니스 중심 섹스에 길들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피스톤 운동의 색다른 기법과 지스팟 자극의 문제 등은 차후에 하나씩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특히 지스팟 자극의 여러 비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런 오랜 인습(因習)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만이 더욱 효과적인 쾌락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무 중심 섹스에서 여성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무엇보다 그 은근한 자극과 내밀한 스킨십을 감미롭게 받아들이지요. 당신이 변화무쌍한 애무 스킬의 소유자라면 그녀는 당신의 화려한 리드에 의해, 몹시 부드럽다가 사이사이 격렬하게 밀려오는 변화무쌍한 테크닉에 완전히 넋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정도라면 우리 수업의 지향점인 멀티 오르가슴에 이르기엔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여러 이론을 차용해 도식화해 볼까 합니다.

작년 내내 수많은 찬성과 반대 견해 속에서 지구촌 지식인 사이를 달궜던 논쟁은 ‘피케티 이론’입니다. 피케티 기본 공식은 간단합니다.

자본수익률 > 노동수익률

순자산수익률 > 경제성장률

이 도식에 빗대어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정리하면 역시 간단합니다.

애무 기쁨률 > 피스톤 기쁨률

음핵 오르가슴 > 질 오르가슴

이것이 소위 제가 말하는 ‘제1섹스 공식’입니다. 정말 쉽고 명료하지 않습니까?

여성의 피부 하나하나를 몹시 예민합니다. 유기적인 해면체와도 같은 그 감각의 섬세함은 가히 온몸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민감하게 발달된 세포 조직들이 당신의 화려한 손·입·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찾아내어 그 정교한 피부 각질층 사이사이에 애정과 쾌락을 심어주는 것은 남성인 당신의 몫입니다.

남성 역시 온몸의 피부 하나하나가 민감하고 모든 부위가 성감대이긴 하지만, 그 성감을 더 예리하게 받아들이는 쪽은 아무래도 여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성은 감각적으로도 남성보다 우월합니다. 그 섬세한 감촉을 끈질기게 찾아내어 오랜 시간 정성껏 애무해 줄 때 연인은 비로소 자신이 진정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황홀함에 빠져드는 것이지요.

마초맨과 멀티맨의 갈림길에서

보름 전에 프랑스의 퐁텐블로 오세나 경매소에서 나폴레옹 황제의 전설적인 모자를 두고 경매가 벌어졌습니다. 박빙의 대결 끝에 무려 26억원에 낙찰받은 사람은 김홍국 하림 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 치킨업계의 거물, 나폴레옹의 모자를 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경매 초보인 김 회장은 나폴레옹을 1%의 가능성을 보고도 도전하는 창의적인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필자 역시 학창 시절 그의 전기를 읽고 평민 출신으로서 장대한 세계사의 흐름에 꺾겼었던 그 도전정신과 대범한 스케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마도 역사상 최고의 마초남은 나폴레옹이 아닌가 합니다. 그는 식사와 섹스는 15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섹스는 단지 땀의 교환일 뿐이며, 여자의 역할은 침대와 가족, 교회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긴 나폴레옹에게는 셰익스피어조차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연극 〈햄릿〉을 파리 공연에서 수많은 부분을 삭제한 후 비로소 허용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문제는 그런 사고를 가진 나폴레옹이 현대에 부활해 어느 평범한 여인과 데이트를 한다면, 며칠 만에 아웃되기 십상이라는 점이지요.

시대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남녀평등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이며, 어떤 측면에서는 이미 여성 상위의 현상이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각종 광고 매체들도 경제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선전 문구로 도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구는 물론이고 홍콩, 싱가포르, 괌, 호주 등의 도처에서 여성을 최우선 시하는 모습이 놀랄 정도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남성들이 오를 섹스에 더더욱 집중해야 할 시대입니다. 특히 오럴에 취약한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여성은 오럴을 받는다는 것이 자신을 향한 애정과 배려의 정도와 비례한다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오럴 섹스는 여성의 성적·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남편(연인)이 오럴을 해줄 때면 자신이 관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행복감에 도취하고, 점점 고조되는 흥분과 사랑의 성취감에 무아지경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연인을 멀티 오르가슴으로 이끌기 위해 헌신하는 멀티맨은 확실히 마초맨보다 사랑을 얻기 수월합니다. 아직은 생소하겠지만, 진정한 멀티맨이 되기 위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간단한 공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를 통해 새삼 부각된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대성 이론의 기본은 ‘E=mc²’입니다.

에너지 = 질량 × 광속²

이것을 응용한 ‘제2 섹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멀티 오르가슴 = 시간(정성) × 애무 스킬²

확실히 연인이 멀티 오르가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애무 스킬이 매

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당신의 진득한 정성과 배려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한편, 여성이 자극받기 쉬운 신체 부위로 본 '제3 섹스 공식'은 이렇습니다.

$$\text{멀티 오르가슴} = \text{지스팟} \times \text{클리토리스}^2$$

일반적인 남성의 편견과 달리 여성은 클리토리스의 자극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실제 그녀들이 자위를 할 때에도 음핵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크고요.

제3 공식을 응용해 남자의 효율적인 무기로 본 '제4 섹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멀티 오르가슴} = \text{페니스} \times (\text{손} \cdot \text{입} \cdot \text{혀})^2$$

자, 어떻습니까? 그동안 당신이 생각해 왔고 운영해 오던 방식과는 무척 다르지 않나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이 정도로만 그친다면 오랜 세월 뇌리에 깊숙이 뿌리 박힌 당신의 인습을 뽑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제 발상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필자가 새로 창조한 언어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위(他慰)'입니다.

他慰에 대한 考察

존 콜리어의 <고다이바 부인(1898년)>.나체의 여인은 11세기 영국의 한 지역 영주의 젊은 부인 고다이바이다. 그녀는 주민들의 세금을 낮추기 위해 스스로 옷을 벗고 말 위에 올랐다고 한다.

사전에도 없는 '타위'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남성들이 어릴 때부터 해오던 '자위'의 상대 개념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시절부터 해왔던 '수음(手淫)'은 말 그대로 은밀하게 손으로 행하던 자기 위로의 행위입니다. 다소 죄책감을 가지고 행하던 우리와는 달리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고급 화장지를 권하기도 하지만요.

성인이 되어 연인을 만나고, 또 결혼하면 안 하게 될 줄 알았던 자위행위는 인생길에서 녹록하지 않게 우리 뒤를 따라다니곤 합니다. 심지어 일부 남성은 아내를 팽개쳐 두고 '야동'에 탐닉함으로써 적지 않은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도 하고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자위가 자기만족을 위한 행위라면, 타위는 자신의 쾌락을 일단 배제하고 상대 여성의 만족을 위해 헌신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랑하는 이가 기쁨을 누리는 모습에서 얻는 대리만족은 분명 존재하지만요.

또한 자위가 페니스 중심의 오르가슴 추구 과정이라면, 타위는 페니스를 일단 배제한 상태에서 상대를 오르가슴에 오르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제5 섹스 공식'은 일명 '타위 공식'입니다. 여기서 페니스는 배제되어 있지요.

$$\text{멀티 오르가슴} = \text{손} \cdot \text{입} \cdot \text{혀} \times \text{멀티플레이}^2$$

각종 세밀한 기술이나 멀티플레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알아나갈 것입니다.

물론 이상적인 섹스는 상호 교환의 섹스입니다. 남성이 여성의 특정 부분을 애무하면 여성도 남성의 일정 부분을 자극해 주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형태가 소위 말하는 '69자세'입니다. 상호 교환의 섹스는 그동안 한국 남성 대부분이 해오던 일방적 섹스보다는 진일보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섹스 자세가 이타적 섹스이고, 그 중에서도 일단 페니스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타위'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타위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일방적인 섹스입니다. 그런데 이 일방적인 방식이 여성에게 파트너의 무한한 애정과 배려를 철저히 인식시켜 주고, 무엇보다 자신의 쾌감 상승에 집중·몰입하게 함으로써 최상급의 오르가슴은 물론, 연달아 멀티 오르가슴에 오르게 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전체적인 섹스의 과정에서 페니스가 끝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섹스 중간중간, 또 유희의 수단으로, 중국에 가서는 연인이 멀티 오르가슴에 도달한 후 또는 최소한 한 번 빅 오르가슴에 오른 후 다시 멀티 오르가슴에 오르게 하는 수단으로 몹시 유용한 것이 페니스입니다. 더구나 남성은 페니스 운동이나 자극을 통해서만 오르가슴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멀티 오르가슴을 이제 막 배워나가는 여러분은 맨 처음 수련을 할 때만큼은 철저하게 페니스를 배제한 채 오로지 파트너의 절대 만족만을

위한 일념으로 타위하고 또 타위하겠다는 자세를 가져달라는 말입니다.

과연 타위가 멀티 오르가슴에 이르는 가장 효과적인 비책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저의 책 《멀티를 선물하는 남자》에서 밝혔듯이 여성은 개발하기에 따라 자기 위로만으로도 멀티 오르가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미 책에서 남성의 전화 목소리만으로 여성이 멀티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매뉴얼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자 혼자 하는 방식보다 강한 것이 사랑하는 남성의 목소리가 곁들여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로 인한 수많은 성공 사례의 증언들을 필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위는 당신의 손·입·혀를 통해 실제 섹스의 과정으로 행해지는 정교한 자극이므로 여성 혼자 하게 유도하는 방식보다도 다섯 배는 자극이 강합니다. 적어도 사랑하는 남자의 체온과 살아 숨 쉬는 손길, 따스한 숨결을 동시에 느끼기 때문이지요. 그런 까닭으로 타위는 멀티 오르가슴에 도달하기에 훨씬 더 유리한 최고의 방식입니다.

페니스 없는 섹스

때로는 발상의 전환이 위대한 경쟁력을 창출합니다. 미국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와 영국 다이슨의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이 대표적인 경우지요. 다이슨은 ‘선풍기는 당연히 날개가 있어야 한다’는 통념을 깨고 날개 없는 선풍기를 창조해 냈습니다. 그러한 창의력은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 소리가 안 나는 헤어 드라이어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페니스 없는 섹스’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당신이 나이가 많거나 신체가 허약해도 일단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조루이거나 성적 능력에 크게 문제가 있는 발기부전일지라도 하기에 따라서 멀티 오르가슴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젊거나 정력에 자신이 있다 해도 타위는 멀티로의 지름길입니다. 이런 주장이 단지 공허한 이론뿐이고 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만약 당신의 페니스 능력이 탁월하다면 그것 역시 타위를 통해 멀티 오르가

슴에 도달시킨 후나 최소한 한 번의 큰 오르가슴에 올려놓은 뒤에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타위가 좋은 또 다른 이유는 당신의 정력과 건강을 유지해 가기에 유리하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성적 발기 능력의 횡수와 상관없이 마음먹으면 아내를 자주자주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성 여러분의 오랜 고정관념과 타성입니다. 어떻게 남자가 그럴 수 있느냐는 반문이지요. 여기서도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자위에 그토록 익숙해 왔던 당신이 타위를 못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경우는 사랑하는 여성을 위한 배려라는 대명제(大命題)가 깔려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연인)의 거부감과 비(非)호응입니다. 당신의 잘못 도식화된 유도, 혹은 부부 상호간의 고정된 패턴 때문에 수많은 남성은 시도에 애를 먹는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럴 경우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은 지속적이고 상당한 인내와 노력이 요구됨은 물론입니다.

타위하고 또 타위하라

과거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섹스에서마저 약자였습니다. 은연중 수동적인 입장과 동양적 유교 사상이 결합되어 배어버린 습관을 이제는 남성인 당신이 주도권을 쥐고 깨뜨려줘야 합니다.

전(前) 회에서 살펴본 대로 이제는 120세 시대입니다. 기나긴 인생길에서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즐기차게 좋은 섹스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버텨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답은 의외로 명료하지 않습니까? 타위는 당신의 마음이 육체를 통해 그녀에게 전달되는 헌신의 과정입니다. 결국 그녀와 섹스를 통해 합체되는 훌륭한 방식이지요.

타위에 의한 섹스는 절대 유사 성행위의 수준이 아닙니다. 떳떳하게 당신과 그녀가 함께 나누는 정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성행위인 것입니다. 남성이 온 정성을 다해 타위해 줄 때 마찬가지로 여성 역시 그런 파트너를 위해 최선을 다해 타위해 줄 것입니다.

결국 하나의 타위는 또 다른 타위를 가져올 것이고, 당신은 그녀로부터 최상의 성적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페니스 없는 섹스’가 연인의 온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샘솟는 메아리가 되고 결국 당신의 페니스는 최고 만족의 극치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현진건은 1930년대 일제 치하의 암울한 현실을 ‘술 권하는 사회’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타위 권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출처 | 월간조선 2월호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4&nNewsNumb=20150116486&nidx=16487&chosun>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글의 출처는 월간조선 2월호로, 일종의 섹스 가이드인데 조선닷컴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홈페이지 하단 조선pub의 주목도가 높은 곳에 제목이 노출된 글의 골자는 여성에게 멀티 오르가슴을 선물하기 위해 애무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섹스 가이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내용 자체가 어린이 등이 보기에는 외설적인 사진이나 소설, 동영상 못지않게 선정적이다. 음핵, 질, 클리토리스, 페니스, 69자세, 지스팟, 음핵 오르가슴, 질 오르가슴, 애무 중심 섹스, 페니스 중심 섹스, 손과 입과 혀를 통해 여성을 자극하라는 등 신문에 쓰기엔 부적절해 보이는 어휘도 거침없이 노출돼 있다. 내용의 좋고 나쁨을 떠나 홈페이지의 주목도가 높은 곳에 이런 섹스 가이드를 편집해 어린이들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위 칼럼은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